

미세먼지 5년만 감소...계절관리제 시행 효과

광주 5등급 차량 운행 제한·노후차량 조기폐차 영농폐기물 소각금지·친환경 보일러 보급

광주지역 미세먼지 평균농도가 지난 2019년 이후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초미세먼지(PM2.5) 평균농도가 18.7 $\mu\text{g}/\text{m}^3$ 으로 지난 2019년 계절관리제 시행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초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전 같

은 기간(2018년 12월~2019년 3월) 평균농도는 33 $\mu\text{g}/\text{m}^3$ 이었으며 2019년 1차 21.6 $\mu\text{g}/\text{m}^3$, 2020년 2차 23.9 $\mu\text{g}/\text{m}^3$, 2021년 3차 23.1 $\mu\text{g}/\text{m}^3$, 2022년 4차 23.3 $\mu\text{g}/\text{m}^3$ 이다.
5차 평균 수치는 22018년에 비해 43.3% 개선됐다.
또 미세먼지 농도가 15 $\mu\text{g}/\text{m}^3$ 이하 일 때 내려지는 '미세먼지 좋음' 일수는 58일로 지난해 36일보다 22일이 증가했다.

미세먼지 농도가 36 $\mu\text{g}/\text{m}^3$ 이상일 때 내려지는 '미세먼지 나쁨' 일수는 12일로 지난해 14일보다 2일이 감소하는 등 대기질이 좋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광주시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지난 2019년부터 3개 분야 16개 저감 대책을 시행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제도를 통해 29만7399대에서 14만995대로 감소했으며 노후차 조기폐차·저감장치 부착 등을 지원했다.

또 교통량과 유동인구가 많은 총 7개 구간(38.8km)을 집중관리도로로 지정해 1일 2~4회 이상 청소했다.
미세먼지 불법배출 집중 감시를 통해 공회전 차량 2만6188대, 비산먼지 발생 우려 공사장 311개소, 대기배출사업장 347개소를 단속·점검했다.
이 밖에도 질소산화물(NOx) 배출을 8분의 1로 줄일 수 있는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5만8271대를 보급했으며 농촌 지역 불법 소각 방지, 영농폐기물 6만7439t을 수거·처리했다.
/김도기 기자

광주 서부경찰서장 대기발령 직원 임주운전 책임

광주 서부경찰서 일부 직원들의 잇단 음주운전 비위와 관련, 관리자인 경찰서장과 간부급 직원의 지휘 책임을 묻는 인사가 단행됐다.
경찰청이 부하 직원의 위법·일탈에 대해 '관리자급' 직원의 책임까지 따진 엄중한 문책이다.
15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서부경찰서장과 형사과장이 광주경찰청·서부서 경무과로 대기발령 됐다. 지역에서 각각 첫번째, 두번째 사례다.

최근 서부서를 감찰한 경찰청이 잇따라 의무를 위반한 경찰관을 지휘할 책임은 관리자급 직원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인사 조치로 풀이된다.
올해 들어 발생한 광주 경찰관 음주운전은 지난 12일 등부서 소속 경감급 직원의 사례까지 총 5건이다. 이 중 3건의 비위를 서부서 경찰관이 저질렀다.

경찰청은 지난달과 이달 2차례에 걸쳐 서부서의 북부실태를 감찰 조사했다.
앞서 서부서 형사과 A경감은 지난 3월 오후 9시20분께 서구 풍암동의 사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운전면허 취소수치) 상태로 운전하다가 앞선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입건됐다.
A경감은 사고 수습 도중 "술 냄새가 나는 것 같다"는 상대 차량의 신고로 음주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A경감의 음주 운전은 경찰청장 명의의 특별정보 발령 기간에 적발된 것이어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금호지구대 소속 B경위도 지난달 1일 면허 취소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로 만취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다.



북구의회 개원 33주년 광주 북구의회 개원 33주년 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광주 북구의회 제공

'마스크도 차단 안되는 오존'...광주시 문자메시지 경보제 운영

주의보 이상일 경우 전송...외출 삼가

광주보건환경연구원이 기온 상승 등으로 인해 대기 오존 농도가 높아짐에 따라 오는 10월까지 '오존경보제' 운영한다.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은 오존농도를 실시간으로 관찰한 뒤 시민들에게 알려주는 '오존경보제'를 오는 10월 15일까지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오존경보는 대기 중 오존 평균 농도가 0.12 $\mu\text{g}/\text{m}^3$ 이상이면 '주의보', 0.3 $\mu\text{g}/\text{m}^3$ 이상 '경보', 0.5 $\mu\text{g}/\text{m}^3$ 이상 '중대경보'로 분류된다.
광주보건환경연구원은 오존경보

제 운영 기간 11개 대기환경측정소에서 측정된 오존 농도를 실시간 관찰할 계획이다.
오존 주의보 이상이 발령되면 언론사, 학교 등 2620여개 기관과 대기질 정보 문자서비스 신청자에게 팩스와 문자로 발령 상황을 신속히 전송한다.
광주지역 오존주의보는 지난 2022년에 1일동안 발령됐으며, 지난해는 발령되지 않았다.
오존은 자극적인 냄새와 산화력이 강한 오염물질로 자동차 배기가스와 사업장 등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

과 휘발성유기화합물이 햇빛과 반응해 생성된다.
고농도의 오존에 노출되면 사람의 눈과 코 등 감각기관을 자극하고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므로 어린이, 호흡기 및 심혈관 질환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실내에 머무르는 것이 좋다.
대기질 정보 문자서비스는 광주시 누리집 또는 전화로 신청하면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서광업 광주보건환경연구원 환경연구부장은 "오존은 미세먼지와 달리 마스크로도 차단되지 않으므로 주의보가 발령되면 어린이와 노약자는 외출과 실외활동을 자제하고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선주 기자

남도숙박 할인...“싸게 싸게 전남 오세요”

전남관광플랫폼에서 결제하면 자동으로 최대 4만원 혜택

전남도가 관광객 유치와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남도 숙박할인 이벤트를 일선 시·군과 함께 본격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전남도와 광주 외에 주소를 둔 관광객으로, 10만 원 이상 결제는 4만 원, 7만 원 이상은 3만 원, 7만 원 미만은 2만 원을 할인한다. 전남사랑에(愛) 서포터즈 회원은 할인금액에 더해 1만 원 추가 할인이 적용된다.
전남 생산품 판매 촉진과 관광 활성화 등을 홍보하는 전남 사랑에 서포터즈는 현재 45만 명으로, 전남에 주소를 두지 않은 전남 향우라면 누구든지 전남관광플랫폼(JNTOUR)을 이용해 가입할 수 있다.
남도 숙박할인 이벤트 사업은 지난해 신청서를 작성해 시·군에

미리 제출해야 할인이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사전 신청 절차 없이 스마트폰의 전남관광플랫폼 앱에서 결제하면 자동으로 할인되도록 구성했다. 전남관광플랫폼은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심우정 전남도 관광과장은 "앞으로남도 숙박할인 이벤트 사업뿐만 아니라 전남관광플랫폼을 적극 활용한 원스톱 관광서비스 제공에 힘쓰겠다"며 "전남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편의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도 숙박할인 이벤트 사업은 지난해 339개소 숙박업체가 참여해, 1만5000여 관광객이 할인 혜택을 누렸다.
/김 호 기자

광주·전남 상장사 32곳 실적 호전

12월 결산법인 37개사 중 32개사 성적 발표

광주·전남지역 최상위 상장기업인 한국전력의 지난해 경영 실적이 크게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거래소 광주사무소가 발표한 '광주·전남지역 12월 결산법인의 2023년도 결산실적'에 따르면 매출액은 95조4874억원으로 전년보다 22.00%(17조2160억원) 증가했다.
영업손실은 5조9511억원으로 전년 대비 27조6045억원 줄었고, 순이익은 2조9687억원을 기록해 전년보다 적자가 22조3032억원 축소됐다.
이는 광주·전남지역 상장법인 37개사(코스피 16개사·코스닥 21개사) 중 실적이 비교 가능한 32개사(코스피 13사·코스닥 19사)의 경영 실적을 분석한 결과다.
신규 설립된 조선내화와 법인이 분할된 시알홀딩스,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대유플러스, 위니아, 위니아에이 등 7개사는 분석에서 제외됐다.
지역 상장기업 전체 매출액의 89.88%를 점유하는 실적 비중 최상위사인 한국전력의 2023년 매출액은 85조8256억원으로 전년(68조9515억원)보다 24.47%(16조8740억원)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6조5040억원으로 전년(-33조9086억원) 대비 적자 규모가 27조4047억원 줄었다.
순이익은 마이너스 3조2492억원

원으로 전년(-25조2977억원)보다 적자폭이 22조4855억원 감소했다.
지역 상장법인의 수익성을 나타내는 매출액 영업이익률(-6.23%)과 매출액 순이익률(-3.13%)은 전년 대비 각각 36.64%포인트(p), 29.18%p 증가함으로써 경영 실적이 다소 개선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전력을 제외하면 매출액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순이익률은 전년보다 각각 1.93%p, 2.63%p 증가했다.
지역 상장법인 32개사 중 총 16개사가 흑자를 냈고 이 중 금호타이어(2226억원)와 상상인더스트리(36억원) 등 2개사는 흑자로 전환했다.
반면 남화토건 등은 적자로 전환했고 오이솔루션 등의 적자폭 확대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순이익이 적자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코스닥 상장법인의 지난해 매출액은 8835억원으로 전년보다 16.64%(1763억원) 감소했다.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마이너스 86억원, 614억원을 기록했다.
/김도기 기자

기사제보 062)363-8800
호남매일 www.honam.co.kr

광고문의 : 062-363-8800

전화 한통화로 광고효과를 확인하세요

신문광고 매체 모든 것

호남매일에 맡겨주십시오

공고광고	대리점모집 및 사원모집광고, 사무실 이전광고, 결산공고, 분실광고, 정부 및 관공서 광고 등
준공고광고	영업(PR)광고와 공고광고가 혼합된 광고
부동산광고	부동산 관련광고와 분양 영업광고 일반적 상품광고, 기업PR 광고, 세일광고 등
정치 및 긴급성 광고	성명서, 호소문, 해명서 등 긴급을 요하는 광고와 정치단체(정당)에서 하는 정치광고
안내광고	구인, 구직, 부동산 임대나 매입, 중고품 판매, 결혼상담 등 각종 생활정보 광고

광고접수 : 062-363-8800 FAX:062-362-0078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166 이메일:honamnews@hanmail.net